

역대급 엔저에...직격탄 맞은 광주·전남 농수산물

전남 수출액 1위 일본...김·파프리카 등 수출단가 '두 자릿수' 하락 파프리카 시세하락에 내수로 몰려...롯데마트, 30일까지 할인전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초(超)엔저'로 인한 수출 악영향이 일본에 가장 많은 농수산물 수출하는 광주·전남 농수산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지난달 들어 광주·전남 수출 주력품목인 김과 파프리카 수출 단가는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떨어졌다.

2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지역 김의 일본 수출액은 1028만달러(137억5000만원)로, 지난해 같은 달(1705만달러)보다 39.7%(-677 만달러) 감소했다.

일본에 대한 광주·전남 1위 수출 품목인 김의 수출액 감소세(전년 대비)는 지난 7월(-52.0%)과 8월(-32.1%), 9월(-31.6%), 10월(-39.7%) 등 4달 연속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김 수출량이 22.7%(676t \rightarrow 522t) 줄어든 데 비해 수출 금액 감소율이 더 큰 건 32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 같은 수출물량이라도 수출가가 낮아짐을 뜻한다.

게다가 농어업용 유가가 급등하고 인건비와 물류비도 함께 오르면서 수출 농가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지난 10월 일본으로 수출된 광주·전남 김 kg당 평균 수출단가(모든 품위 합계)는 2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0% 하락했다.

일본 수출액 2위인 전북 역시 지난달 수출량이 19% 늘었지만 kg당 평균 수출 단가는 전년보다 5.5% 떨어진 24달러를 나타냈다.

일본 수출액이 세 번째로 많은 미역 품목은 최근 들어 수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9월(-21 만달러)과 10월(-43 만달러)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점포에서 조금 작거나 흠이 있는 이른바 'B+'급 파프리카 30t을 확보해 기존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파

프리카의 3분의 1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이는 전국 파프리카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최근 엔저로 인해 파프리카 일본 수출가가 기존 내수 시세보다 20% 이상 하락해 생산비용을 고려하면 농가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화 환율 안정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채소 농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생 파프리카' 행사를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aT 광주전남본부 수출유통부장은 "최근 일본으로 수출되는 신선 식품은 엔저로 인한 단가 문제에 국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인다"며 "특히 파프리카는 울어름 폭우와 태풍 영향으로 상품성이 저하되고 엔저 현상으로 가격 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산물 가을걷이 수도권서 특별판매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수도권 농협 유통매장(서울 양재·창동점, 경기 성남·수원·고양점)에서 27일까지 3일간 연 '전남 농산물 가을걷이 특별판매전'에서 김원일(왼쪽) 부분부장이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남 농산물 구매 고객에게 파프리카를 증정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광주검사국, 벼 수매현장 중대재해 특별점검



유정기(왼쪽)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장이 이선학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와 광주 통합 RPC(미국종합처리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 21만470원...지난해보다 12% 하락

고춧가루·마늘 ↓ 대파·생강 ↑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24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이 21만470원을 기록해 지난해(11월17일) 대비 2.1%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주 전인 11월10일과 비교할 때 4.9%, 지난해 11월 하순과 비교할 때 12.1% 떨어진 가격이다.

이번 조사는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김장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는 20포기 기준 5만8605원으로 지난해 대비 5.1% 떨어졌다.

무는 5개 기준 1만1443원, 쪽파는 0.7kg 기준 4244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모두 7.4%씩 하락했다.

그 외 고춧가루(2kg 기준), 마늘(1.3kg)이 0.2%, 3.2% 떨어졌다.

일본 양념채소류는 가격이 올랐다.

대파(0.7kg 기준)와 생강(0.3kg)이 지난해 대비 3.6%, 2.9% 오른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견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 비축물량을 시장에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유통업체와 할인행사도 연계한다. 이달 30일까지는 aT 블로그(blog.naver.com/gr22nade)를 통해 '우리집 김장 김치 자랑하기' 행사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고유형별 위험요소 등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은 지난 25일 광산구 동림동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유정기 광주검사국장은 견조벼 수매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 기계설비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법인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유형별 37개 세부 안전 항목을 확인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

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유정기 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점검항목을 올해부터 정기감사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업인과 고객, 임직원이 더 안전하게 농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토지 매매 (담양)(장성)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임야 : 7,500평**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